◆ 特 輯

圖協 20年의 反省과 提言

바람직한 活動은 基本的인 일에 專念하는 것

金 世 翊
梨大圖書館學科 敎授

1. 20周年의 意味

1945年 8月에 조선도서관협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다음다음해 1947년 4월21일에 제1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니 지금생각하면 감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전후의 국내 사정을 보아온 우리로서는 그 당시 많은 정당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모두가 애국투사요 혁명투사라했고 또는 이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전환기를 교묘히 이용하여 한목볼려는 모리배들이 우굴거리던 해방직후에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나 돈과는 인연이 없고 한번도 사회적 이슈도 되지 못했던 도서관계의 발전을 기약하면서 묵묵히 일했던 당시의 도서관계의 선배들의 마음가짐에 우리는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분들은 고독한 애국자였다. 일본사람들이 물러간 다음에 도서관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朴奉石씨 같은 선각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당시의 도서관인들의 마음가짐은 더 없이 숭고하여 머리가 수그러질 따름이다. 북으로 납치된 후 지금은 생사조차 알길이 없는 朴奉石씨는 1880년대의 미국의 「멜빌 듀이」를 방불케 하며 누군가가 그 당시의 사정에 밝은 사람에 의하여 그의 전기와 업적이 소상히 연구되고 기록되어야 할 줄 안다.

6·25동란을 겪는 동안에 다른 모든 부문과 같이 도서관계에도 인적 물적 손실이 컸었다. 당시 국립도서관장이었던 李在郁씨와 앞에서 말한 朴奉石씨 등이 납북되었고 도서관의 물질적 피해도 결코 적지 않았다. 사실상 1955년 4월에 재편성된 한국도서관협회가 발족하기 까지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은 공백기였다.

지금 우리가 도협창립 20주년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도협이 재편성 조직된 1955년을 기점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해방후의 도협 즉 1947년을 기준으로 하면 29주년이 된다. 그런데 어째서 도협창립을 20주년으로 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간의 사정만은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圖協의 발자취

그 체질에 헛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과거 20년동안 이룩한 도협의 공적은 결코 적지 않았다.

표면상이나마 적국의 각종 각급의 도서관을 하나로 결속시킨 공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하나의 계층으로 「도서관계」라는 개념을 부각시켰으며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독서주간 도서관주간 그리고 도서관대회같은 연중행사를 계속함으로서 도서관의 이미지를 사람들의 의식속에 침투시켰으며 도서관업무수행에 필요한 KDC를 비롯한 각종 도구의 출판 배포 등은 큰 공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하여 도서관봉사의 수공업적(手工業的)업무를 하나의 과학적차원(科學的次元)으로 올려 놓기도 했다. 몇차례의 국제적 교류는 한국도서관계에 대한 국제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작고 미흡한 채로 기관지 도협월보가 계속해서 발간된 것도 다른 단체에서는 보기 드믄 일이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왜 KLA가 ALA나 LA처럼 권위있는 단체가 못되느냐고 한탄도 하지만 사회구조가 다른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나름대로의 존재가치와 의의는 있으며 도협 20년의 역사는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할일은 어떤 방법이건 도협을 지키고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지상과제다. 우리는 결코 현재의 도협의 체질에 대하여 만족할 수는 없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감각을 가지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도협에 대하여 많은 견해의 차이를 느껴 왔다. 이것은 곧 도서관봉사 자체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기도 했다.

3. 展望과 意見

20년이면 강산이 두번 변하는 셈이다.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근대화의 물결이 드높아 가고 있는데 도협도 이 시점에서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가. 부회 중심적 조직체계

현재도 이사회 구성원칙을 보면 각부회별 지역별 대

표로 되어있지만 인물중심의 인상이 짙어서 이것이 고질화 되면 섹트의식이 노출되기 쉽다. 하루 이틀에 될 것이 아니겠지만 금후 수삼년 내에 각 부회를 강화하여 부회별 대표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각 부회는 목적하는 바가 같고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동지의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부회, 대학도서관부회, 특수도서관부회, 전문도서관부회, 그리고 학교도서관부회가 독립된 단체로서 결성 강화되고 도협이사회는 각 부회의 대표자로서 구성되어서 보편적인 정책만 수립하고 통합하는 역할에서 그 존재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과거와 달라서 이제는 각산하 부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기대해도 좋을 시기가 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년에 한번씩 있는 총회도 각 부회 중심의 총회가 있어야 하고 도협 전체총회 권한은 이사회에서 맡아하면 될 것이다. 이런 발상은 결국 현재의 도협총회가 과연 무슨 뜻이 있겠느냐하는 의문이 나기 때문이다. 전국의 도서관인이 한자리에 몰일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도서관대회 같은데서 있으면 족할 것이다. 사실상 각 유형의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과 3, 4명의 협회 사무국직원으로서는 힘에 겨웁다.

도협 사무국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대정부 절충과 국제적 교류문제 등 일반적이면서도 기본이 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구협의회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회의적이다. 도서관협회는 도서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노출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너무 서울 중심이라는 비난도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이제는 그런 기우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고려는 오히려 마찰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각 산하 부회속에 지역성이 고려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구협의회의 존재 그자체는 그 지역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겠지만 도협이사회에 그 대표가 굳이 끼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서관협회는 지역이 아니라 도서관 그 자체를 문제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제는 각 부회의 기능의 강화가 전제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은 각 유형의 도서관들이 점차로 그 성격이 뚜렷해 졌기 때문에 공통된 문제가 빈번히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많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나라 도서관계도 내용적으로는 발전이 있었던 까닭이다.

나. 한국도서관 발전의 기조

도협이 정부나 기타 요로와의 절충에서 해결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겠지만 나의 의견으로서는 공공도서관문제가 최우선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한 나라의 도서관 문화는 그 나라의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기조로 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국민 전체가 도서관의 존재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도서관이 사회의 필요한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공공도서관에서 그 결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단시일내에 이룩해야 할 일은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발전이다.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오던 도서관법을 개정하여 내용적으로 제도화하여 공공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침투되고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기관으로 만드는데 도협은 더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란다. 그 수에 있어서나 이용자의 범위에 있어서나 그리고 봉사의 다양함은 다른 어느 도서관도 따르지 못한다. 공공도서관이 전국 방방곡곡에 골고루 산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우리 나라 도서관이 문화적으로 정립되는 날이 될 것이다. 결국 예산문제가 대두될 것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 대한 위정자들의 인식문제이다. 2조원도 훨씬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도서관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예산을 할애 못할 까닭이 없다. 도협은 정부나 국회와 끊임없는 접촉을 가지면서 공공도서관의 보편화를 이룩해야 할 줄로 안다.

예산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문제가 되겠는데 지금과 같은 도서관 인사정책을 지양하고 도서관을 잘 알고 그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부산이나 대구에도 여러 개의 도서관학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전처럼 그런 애로는 덜 할 것 같다. 다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서관의 전문직성이 확립되지 못한 까닭에 현재와 같은 인사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을 도서관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별다른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 없이는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본질적인 발전은 기하기가 어렵다.

영국의 리버풀 공공도서관장인 「챤드라」(George Chandler)가 쓴 「아세아의 圖書館」(Libraries in the East. 1971)에서

「……도서관이 도서관 독자적인 행정체를 가질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진실을 파악

한 발언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공공도서관의 발전이 느린 이유는 예산이 적은 것과 도서관 독자적인 행정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시회(市會)에 도서관위원회(Library Committee)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같은 위치에서서 도서관 독자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행정체계에 있어서 교육장과 같은 위치에 도서관 위원장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 나라처럼 교육위원회 밑에 도서관이 있거나 시장이나 군수의 지시를 받는 도서관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미국의 경우도 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도서관 평의회(Library Board)가 있어서 독자적으로 도서관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도서관장은 교육장이나 경찰서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선진국의 그것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서관 독자적 행적주체(Governing instrument)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도서관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도서관장은 대체로 교육차장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보다는 일일지장이 있지만 일본의 공공도서관도 이런 행정체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도협이 해야 할 일은 공공도서관의 발전——그것은 곧 우리나라 전체도서관의 발전이기도 하다——을 기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바란다.

도서관협회 20주년을 맞이하는 글에서 나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문제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언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 나라의 도서관문화의 바로미터가 곧 공공도서관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타 도서관들은 사실상 도협의 적극적인 관여없이도 어느 정도의 그들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에 있지만 공공도서관만은 도협의 많은 노력없이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정부당국과 끊임없이 접촉을 가져서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수준을 높혀야 할 것을 다른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하기 바란다.

공공도서관 앞을 지나면 길게 늘어진 사람들의 줄을 볼 수 있다. 외국의 공공도서관 앞에서도 그런 줄 이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가방을 든 학생들이고 외국의 경우는 학생이 아니라 주부나 노인들 즉 일반시민들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전자는 입시준비를 위해 공부할 자리가 비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후자는 빌려간 책을 돌려주고 또 다른 책을 대출하고자 그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두개의 상반된 현상은 곧 그 나라에 있어서의 공공도서관의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왜 우리의 공공도서관을 일반시민들이 외면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도서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일까. 우리는 사회에 나가면 아예 책을 멀리해버리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손쉽게 찾아 갈 도서관이 없기 때문이며 또 도서관 봉사형태 자체가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도서관을 몇개 만들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을 빼고 이른 바 시립도서관이 4개 있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그 규모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다. 서고에 있는 책이나 사서의 수는 그렇지도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건물의 크기는 세계적이다. 그것은 그런대로 좋은 일이지만 그 보다 훨씬 작더라도 도서관 수가 많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분관이나 이동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이 손쉽게 부담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분관 이외에 부분관이니 배본소 정본소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까지는 못할지라도 현재의 4개의 도서관을 본관으로하여 그 아래에 여러개의 분관을 설치하고 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른 바 도서관 봉사망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이 일을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협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出發은 펜촉 하나 없는 完全한 無에서

朴 熙 永
東國大圖書館司書課長

單 1원의 돈도 없었거니와 事務室도 없었고 펜촉 하나 없는 完全한 無에서 出發한 圖協이 創立된지도 어언 20個 星霜이 흘렀다.. 鎭海 海軍官舍에서 嚴 大燮 先生 그리고 崔 震武 先生과 함께 定款을 草案하여 創立으로부터 現在까지 圖協과 因緣을 맺어 온 筆者로서는 感慨가 無量하다. 우리의 圖協이 자라서 어느덧 20歲의 成人이 되었다는 기쁨을 말하기 以前에 우리들의 圖書館과 이 圖書館들의 聯合體인 圖協이 이만큼 자라서 成人이 되었다고 一般 社會에 알리고 우리들도 기뻐해야 할 記念式을 조촐하게라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들 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創立 20

周年 記念日을 지냈음을 생각할 때 甚히 가슴 아픈 쓰라림을 억제할 수 없다.

돌이켜 보건대 無에서 出發한 20年前과 그간 참으로 험준한 길을 헤치고 지내온 오늘 날의 圖協을 比較한다면 隔世의 感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인 것이다. 오늘 날의 圖協이 있기까지 圖協을 키워오신 歷代會長님을 비롯하여 歷代 任員님의 勞心과 圖協을 直接運營하여오신 歷代 事務局長님과 事務局職員 여러 분의 形言할 수 없는 焦思의 結果인 바 오직 이분들에게 感謝할 뿐이다.

圖協의 創立이라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 큰일을 慶州로부터 單身 上京하여 私財를 들여 東奔西走하며 勞力하여 圖協을 創立해서 基礎를 다져 주신 初代事務局長 嚴 大燮 先生(現 마을文庫事務總長)의 勞苦가 없었더라면 圖協의 創立은 훨씬 뒤에 이루어 졌을 것이며 언젠간 創立되었을 圖協이 지금의 우리 圖協과 같은 圖協이 이룩되었을지 의아스럽게 생각된다. 다음은 우리들의 渴望하던 圖書館法을 制定 公布하도록 努力하여 滿足할 수는 없으나 結實을 보았고 그리고 圖書館이 必要로 하는 K.D.C.와 K.C.R.을 비롯한 圖書館의 道具와 많은 圖書館學 關係 刊行物을 著述케 하여 이것을 發行하는 등 圖協이 發展할 수 있는 기틀을 견고히 마련하여 圖協을 完全한 軌道에 올려 놓은 第2代 事務局長 李 鍾文 先生(現 鍾根堂製藥 專務理事)의 功 또한 잊을 수 없다. 그리고 1976年 即 來年에 서울에서 開催되는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를 유치하여 開催할 勇氣와 계기를 마련한 亞細亞太平洋地域 圖書館國際會議를 開催하여 우리의 圖協을 國際舞臺에 올려논 第 4代 事務局長 崔 根滿 先生(現 光星企業社 副社長)의 勞苦 또한 컸으며 數年前부터 國家의 補助가 없는 圖協을 이끌어 가면서도 IFLA大會를 韓國에 유치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려 1976年 6月에는 全世界의 圖書館 指導者 學者들을 서울에 몰이도록 갖은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現 事務局長 朴 大權 先生의 勞苦를 위로하며 아울러 바람직한 結實이 맺어지도록 그날을 고대한다.

圖協의 發展이란 곧 各級 圖書館의 發展이다. 그러므로 各級 個個의 圖書館이 發展하지 못하면 圖協도 發展할 수 없는 것이다. 圖協이 創立된 것은 1955年 4月 16日이었는데 圖協이 調査한 1955年 9月 1日現在 全國의 圖書館數는 公共 12, 大學 43, 特殊 15 合計 70個館이었다. 1955年의 70個館과 現在의 4千餘個館과는 比較가 할 수 없을 만큼 圖書館數가 增大하였으나 이 個個의 圖書館이 施設과 藏書와 그리고 奉仕面에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충실한 圖書館인가가 問題일 것이다. 이 中에는 外國의 圖書館과 比較하여도 그리 遜色이 없는 圖書館도 있을 것이고 反面 어떤 圖書館은 이런 圖書館이 있었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되고 한심스럽게 생각되는 圖書館도 있을 것이다. 筆者가 圖協 20周年을 맞이하여 提議하고 싶은 일은 個個의 圖書館의 숨김 없는 그대로의 實態를 大大的으로 調査하여 個個의 圖書館이 나갈 길을 모색해 주고 그것이 몽여 圖書館의 種別로 나갈 길을 밝혀주는 事業이 時急하다고 생각된다. 個個의 圖書館을 一一히 直接 調査하지 않고 書類만으로는 完全한 調査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其間 圖協이 每年 調査하여 完成한 「韓國圖書館統計」는 統計를 集計하는데 끝이지 말고 이것을 多角度로 分析되었어야 할 것이고 그 分析을 土臺로 해서 圖協이 中心이 되어 個個 圖書館이 나갈 길과 韓國 全體圖書館이 나갈 길이 提示되었어야만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反省된다.

여기서 筆者는 圖書館을 實地 답사해야 할 必要性을 절실하게 느꼈던 하나의 例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몇 個月前 어느 日曜日 私私로운 用務가 있어 京畿道 P郡廳 所在地인 P邑에 간 일이 있었다. 일을 끝내고 時間의 餘裕가 있기에 이곳에 設立되어 있는 郡立圖書館을 찾아 보기로 하였다. P邑에 郡立圖書館이 있다는 것은 出版物 寄贈處의 名單을 作成하면서 알고 있었기에 이런 機會에 地方의 小圖書館 더우기 郡立의 公共圖書館이 어떠한 實態인가를 알 수 있는 좋은 機會라고 생각되어 찾았던 것이다. 거리의 行人으로부터 圖書館이 있는 곳을 물어 찾아가 보니 日曜日인데도 門이 닫혀 있었다.

1972年度「韓國圖書館統計」를 參考하여 보면 1963年 7月 設立, 延建坪數 30坪, 座席數 44席, 職員은 其他가 1名, 藏書數는 東書가 1,234卷, 開館時間 8時間, 人件費 57,600원으로 調査되어 있고 圖協과는 非會員이었다. 이 調査의 모든 事項은 3年前의 것이지만 오늘 날에도 이 여러 事項에는 크게 變한 것이 없을 것 같다.

찾아 가면서 생각하기에는 平日 보다는 日曜日에 閱覽者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類의 閱覽者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일만 생각하면서 가보니 圖書館의 門이 굳게 닫혀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窓 넘어로 안을 넘겨다 보았더니 몇個의 閱覽 테이블이 있었고 또 몇個의 書架에는 若干의 圖書가 陳列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圖書館의 門은 닫혀 있지만 그대로 되돌아 갈 수가 없어서 어딘가에 가서 이곳 郡立圖書館에 대하여 한 가지라도 알고 되돌아 오고 싶어서 日曜日이지만 郡廳本廳에는 日直者라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내친 김에 郡廳을 찾아 갔다. 課의 名稱은 記憶에 남지 않지만 아마도 經理課인 것 같았는데 한분이 있기에 郡立圖書館은 어느 課에서 主管하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더니 全然 모른다고 한다. 하는 수 없어 다른 建物로 가서 庶務課를 찾아 日直者에게 같은 것을 물었더니 자세히는 모른다고 하면서 庶務課에 屬해 있는 것 같은데 日曜日이어서 擔當者가 出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되 돌아 나오다가 公報室이라는 표말이 눈에 띄우기에 행여나 하고 公報室을 노크 했더니 職員 한 사람이 寫眞을 作成하다가 나와 주었다. 室內에는 映寫機 擴聲器 公報用册子 등등이 많이 있는 것이 보였고 훌륭한 暗室施設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분이 바로 圖書館이 自己 分掌業務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뻤다. 이분에게서 들은 P郡立圖書館에 관한 이야기를 綜合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았다.

圖書館의 建物은 이郡 가까이 駐屯하고 있던 美軍이 寄贈한 建築資料로 建立하였다고 하며 圖書館의 所管部署는 公報室이라고 한다. 郡의 豫算이 넉넉하지 못하여 圖書의 購入은 거의 없고 大部分이 寄贈된 圖書로서 藏書를 構成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 小規模이고 豫算도 없어서 專任職員을 任用配置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비워 둘 수 없어서 使喚 한사람을 配置하고 使喚으로 하여금 建物管理와 藏書管理를 하게 하고 있는데 밤에도 管理하도록 圖書館에서 起居하고 있다고 하며 이 使喚이 圖書館을 實質的으로 責任(?)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圖書館의 1年間의 總豫算은 人件費 57,600원 뿐이며 이 豫算이 바로 이 使喚의 1年間의 給料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 公休日과 日曜日은 休館하며 平日은 一般 公務員의 勤務時間과 同一한 時間만을 開館한다고 한다.

以上이 내가 찾아 갔던 P郡立圖書館의 實情이다. 市立의 公立圖書館은 여러 館을 본 일이 있었으나 郡立은 이것이 처음이었는데 이 圖書館을 基準으로 하여 다른 郡立圖書館도 같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생각하지도 않겠다. 아무런 目的없이 우연히 보게 된 郡立圖書館이지만 實地로 보고 內容을 듣고 나니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든다. P郡이 郡立의 圖書館을 設置하게 된 그 原因은 어찌되었던 郡立圖書館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 그 하나만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設立된 圖書館을 圖書館다웁게 育成하는 일은 P郡에게만 주어진 任務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圖書館 發展을 爲하여 圖協이 해야할 일들이 山積되어 있을 줄 안다. 그 많은 일들 中에 緩急을 가린다면 사람에 따라 그 우선 順位가 다를줄 알지만 筆者의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 圖書館의 숨김없는 現在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참모습을 알고 이제부터의 나갈 길을 硏究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前述 P郡立圖書館은 다른 나라의 圖書館이 아니라 우리들과 어깨를 같이 하여 걸어 가야 하는 우리 나라의 圖書館인 것이다. 圖協 20年을 맞이 하여 道別도 좋고 館種別도 좋다. 많은 사람을 動員하여 우리 나라 全國 圖書館의 實態를 철저하게 속한 時日內에 調査하여 이것을 土臺로 해서 圖書館發展을 爲한 5個年計劃이든 또는 10個年計劃이든 計劃을 樹立하여 그대로 發展하도록 努力할 것을 提言한다.

圖協 在職時를 回顧하면서

成 宅 慶
國會圖書館參考書誌課長

1.

「도협월보」編輯室로 부터 「圖協 20年의 反省과 提言」이란 題目의 原稿를 請託받고서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筆者가 圖協 20年間을 어떤 面에서 무엇을 反省해야 할지 念頭가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本題가 筆者에게 주어진 것도 宜當 圖協에 在職하였었기 때문에 주어졌을 것이리라고 생각이 되어 위와 같은 副題를 붙여서 「反省」 代身에 「回顧」를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中心으로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붓가는대로 적어서 責任을 免할까 한다.

그러니까 筆者가 圖協에 在職한 것은 1962年 3月부터 1964年 11月까지 꼭 2年 9個月間이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여 보니 갖가지 일을 많이 늘어 놓기도 하였고 東奔西走 어지간히 뛰기도 하였었던 것 같다.

于先 그때의 圖協狀況부터 먼저 說明하여 보면 1955年 4月 韓國圖書館協會가 創立된 以來 嚴 大燮 先生님께서 事務局長으로 계시면서 創立의 陳痛과 初創期의 어려운 여러 가지 與件을 一時는 無報酬에 그야말로 滅私奉職하는 熱과 誠으로서 圖協의 地盤을 구축하였는데 5.16革命後 嚴先生님이 事務局長職을 辭任하고 圖協의 活動이 一時 停止狀態에 있을 때였다.

이러한 때에 지금은 圖書館界를 떠난 李 鍾文 事務局長과 함께 1962年 3月부터 圖協일에 손대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2.

처음에 圖協事務局에 나가 보니 지금도 圖協에 在職中인 朴女史와 또 한분의 女職員 등 두사람이 事務局을 지키고 있는 形便이며 「도협월보」마저도 1961年 6月以後 中斷이 되고 있는 그야말로 무슨일부터 먼저 손대야 할지 막막한 形便이었다.

記錄을 뒤져보니 1962年度에 있었던 큰 事業들은 ①「도협월보」의 續刊, ②第1回 圖書館大會의 開催, ③「圖書館用語集」의 發刊, ④「圖書館目錄規則」의 作成, ⑤「韓國圖書館統計」發刊, ⑥圖書館實務講習會 專門班과 普通班으로 나누어 實施, ⑦讀書週間行事實施 등이 대체로 列擧 할만한 큰 事業들이다.

이때의 이러한 모든 事業이나 行事는 圖書館界가 數年來 宿願하여 오던 圖書館法의 制定 促求가 最終 目的이고 圖書館界가 當面한 가장 큰 잇슈이었다.

3.

특히 第1回 全國圖書館大會는 短時日에 急作된 行事이었지만 이 社會에 圖書館을 認識시키는데 큰 成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또 圖書館人 스스로에게도 어떤 矜持와 自負心을 갖겠금 하였으며 圖協을 中心으로한 圖書館人들의 協力에도 좋은 契機가 되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때 이 大會의 必要性은 圖書館法의 制定을 目前에 두고 여러 가지 圖書館界의 現存 問題들을 들추어 내어 討論하고 法에 反影토록 主張하고 또 스스로를 準備하고 反省하는데 있었다.

"1962年은 圖書館法 制定의 해"라는 標語를 내어 걸고 이땅에 有史以來 圖書館人이 한자리에 많이 모이기는 그때가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協會에 奉職하고 있는 우리 職員 모두는 相當히 흥분된 가운데 그 大會를 치룬 記憶이 생생하다. 그 흥분이 圖協職員뿐만이 아니고 地方에서 온 會員이나 서울에 있는 會員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地方의 會員은 그 大會에서 發表를 指命받고 資料를 準備하여 大會 전날 서울驛에 내렸는데 南大門거리에 높다랗게 나 붙은 圖書館大會의 큰 懸垂幕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드라는 後日譚을 들은 記憶이 난다. 즉 야! 來日 저 큰 大會에 내가 나가서 發表를 할 것을 생각하니 떨리기도 하고 또 미리 흥분도 되드라는 이야기이다.

筆者도 그때 일을 곰곰히 回想하여 보면 相當히 흥분된 가운데 大會를 끝낸 기억이 난다.

이 第1回 大會의 經過를 살펴보면 그때 駐韓美敎育使節團으로 와 있던「피—바디」팀이 그 事業을 끝내고 돌아가면서 얼마간의 豫算이 남았는데 이를 有用히 쓸 어떤 計劃이 없겠는가? 하는데서 始作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6月末頃이었는데 7月初부터 大會計劃案을 事務局에서 立案하여 7月 10日頃에 全國圖書館會員들 中에서 發表議題와 發表者를 定해서 依賴하고 피—바디팀이 떠나기 바로 전날인 7月 21日~22日 兩日間에 大會가 開催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約 20日만에 急作스레 또 會員들의 意見을 綜合할 여가도 없는 그야말로 急速 날치기(勿論 理事會나 技術委員會의 合法的인 節次는 다 거쳤지만) 大會일망정 全體圖書館人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잘 呼應하여 期待以上의 成果를 거두었다고 지금도 그때를 뒤돌아 보고 느끼는 마음이다.

이 大會를 치루느라고 여름의 더위도 잊어버리고 약 20日間을 어떻게 뛰었는지 모른다. 每日 退勤時間은 밤 12時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協會 近處의 旅舘신세를 져야 했으며 어떤때는 旅舘마저도 必要없이 事務室에서 밤을 꼬박 새운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大會計劃書의 作成부터 始作하여 發表議題의 選定發表할 사람의 決定, 言論機關에 대한 P.R. 포스터, 현수막의 製作, 계양, 大會 프로그램 및 其他 必要한 印刷物의 文案作成 印刷 등등 끝없는 일들을 4,5名의 職員으로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지? 到底히 밤이라고 잠잘 時間이 없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多急하고 답답하였던 일 한가지는 7月 21日 아침 10時 大會의 開會式이 始作되고 난 다음의 일이다. 그前까지 圖協모임의 例로 보아서 大會場이 150名만 收容하면 充分할줄로 믿고 中央敎育硏究所 講堂을 大會場으로 定해서 모든 準備를 하여 開會를 하였는데 開會時間이 되어서 모인 사람의 數는 그 半도 收容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복도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바깥마당에 까지 들어차게 되었으니 大會를 主管한 當事者로서 多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開會式이 한참 進行中인데 筆者는 밖으로 빠져 나와서 中央敎育硏究所 바로 위에 있는 崇義女高의 講堂을 交涉 할 참이었다.

밖에 나와보니 비좁아서 안에 들어 오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서성되던 市內의 日刊紙 新聞記者 여러명이 우— 하고 나 한테로 몰려와서 取材코자 무엇인가를 많은 質問을 퍼부어 온다. 그러나 그때의 심정으로는 지금 비좁은 會議場때문에 어찌 한가로히 新聞記者들과 이야기 할 餘裕가 있겠는가? 平素 新聞記者양반이라면 어떤일이든지 다 접어두고 어떻게 든지 圖書館關係 글을 신문에 많이 써 달라고 매달리던 자세였는데 그날은 갑자기 우리 圖書館界가 어제와는 달라진 錯覺마져 느끼며 記者들을 뿌리치고 도망쳐 간 생각과, 崇義女高로 달려가서 校長室 門앞에서 신을 벗기 위해서 구두끈을 아무리 풀려고 해도 바쁘니까 풀려지지 않아서 구두끈을 짤라버리던 생각등 바빠서 허둥되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그後 圖書館大會는 每年 協會의 年例行事가 되어 地方에서도 開催되고 中央에서도 開催되면서 벌써 今年에 第14回 大會를 맞이 하게 되었지만 筆者로서는 第1

回 大會만름의 흥분도 또 全體圖書館人들의 熱과 誠도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4.

1963年度의 重要한 事業은 ①定期刊行物 索引事業, ②推薦圖書事業, ③韓國十進分類法의 制定發刊, ④韓國目錄規則 制定發刊 등이 새로히 登場한 큰 事業들이다.

그리고 그토록 圖書館人들이 熱望해 오던 圖書館法의 制定 公布가 이해 10月에 되었다.

이해 協會가 새로 策定한 위의 事業들은 우리 圖書館界에 있어서는 대단히 重要하고 또 한해 동안에는 벅찬 事業計劃이었다.

「定期刊行物索引」事業도, 「韓國十進分類法」의 制定發刊도, 「韓國目錄規則」의 制定 發刊도, 「推薦圖書目錄」事業 등 그 어느 한가지도 圖書館業務에 基礎的인 道具가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한 莫重한 事業들을 한해 동안에 모두 다 해치우려고 든 計劃自體가 퍽 무리 했건만 지금 圖書館界의 重鎭들이신 當時의 技術委員會 委員 모두가 그야말로 發奮 盡力하여 各自 事務室일을 제쳐 놓고 每日같이 協會 事務局에 모여 會議와 討論을 거듭하고 旅館으로 委員私宅으로 會同 合宿하면서 마침내는 計劃한 事業을 年度末에는 거이 完遂하였던 것이다.

요즈음은 協會일 뿐아니라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會議를 하게되면 반드시 會議費가 있어야 하고 原稿를 쓰면 原稿料를 따지는 야박한(?) 世上이 되었지만 그 때만 하여도 會議費다 原稿料를 따지는 일은 없었다. 오로지 合同해서 일 할때 宿食費만 있으면 그것으로 足하였다. 이렇게 圖書館界의 專門職들이 발벗고 나서서 오직 우리 圖書館界를 위해 盡力하던 때를 지금 回想하여 보니 무척 和氣 애애하였고 希望에 차 있었다.

定期刊行物 索引分委의 李 春熙 分委長以下 故 南珖祐 先生과 任 鍾淳 先生이 每日같이 午後만 되면 協會 事務局으로 나오셔서 밤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索引主題作業을 하던 모습, 分類分科委의 千 惠鳳 分委長과 故 金 泰律 先生, 尹 炳泰 先生 등 여러 분이 여름방학동안 三淸洞 故 金 泰律 先生宅이 좀 시원하다고 그곳에 모여 宿食을 같이 하면서 K.D.C의 類綱目을 조정하느라고 몇일이고 계속해서 鳩首會議하던 모습, 目錄分科委의 張 一世 分委長外 白 麟 先生, 李 喆珪 先生 등 여러 분이 事務局에서 밤가는 줄 모르고 目錄規則 한조목 조목을 協議하던 일, 選定圖書分委의 李 載喆 分委長이 國立中央圖書館, 國會圖書館 등 큰 도서관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 韓國圖書를 뽑아내어 보고 만든 書評紙 原稿를 한아름 안고 다니던 모습, 정말 모두들 오직 圖書館界를 위하여 熱과 誠을 다하던 모습이 선하다.

5.

圖協에는 위에서 記述한 이러한 圖協本來의 業務 以外 더 絕對的이고 큰일이 한가지 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政府의 補助金을 얻어 내는 일이다.

위에서 記述한 圖書館事業들은 우리 圖書館人들 끼리 合心 協議하여 努力만하면 이룩되는 일이다.

그러나 豫算活動은 合心, 協議, 努力으로서는 이룩되지 않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4月末頃부터 始作되는 豫算作成은 그해 年末 國會를 通過해야 일단 끝나지만 또 施行中에도 補助金 今達의 차질과 保留 등 갖가지 難關은 계속된다.

1962年 政府補助金이 80萬원이던 것을 1963年에 160萬원으로 倍加하고 1964年에 200여萬원으로 增額시키는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業務와 努力이 事務局業務의 半以上이라는 것을 會員들은 다 잘 모를 줄 안다.

한 해의 豫算案을 몇차례나 다시 만들어야만 되고 當局者들을 說得시키기 위해서는 별에 별 아이디어가 動員되어야 한다. 智慧와 努力과 끈기가 다 겸비되지 않고는 안된다.

160萬원의 補助金을 얻기 위해서 千餘萬원의 豫算案부터 始作하여 몇번이나 뒤바뀌어서 겨우 160萬이 된 것이다. 外國의 各種 圖書館의 基本的인 Tool이 되는 圖書들을 見本用으로 큰책가방에 가득 담아 가지고 文敎部 經濟企劃院으로 찾아 다니면서 약장사가 약을 팔듯 몇번 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큰책가방만 들고 들어가면 아— 그책 꼭 만들어야 하는 것인줄 아니까 책가방 풀지 말라고 먼저 선수로 가로 막는다. 아무런 그때 行政當事者들은 圖協사람들을 좀 돈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이었다.

특히 이 豫算作戰에 있어서 李 鍾文 前事務局長은 사람을 만나 說得하는 能力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定期刊行物索引」, 分類法, 目錄規則, 選定圖書 등 새로운 사업豫算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6.

이런 別 쓸모 없는 過去 이야기를 늘어놓다가는 끝이 없을 터이니 協會에 奉職했던 사람으로서 會員들에게 드리는 부탁이랄까 協會에 奉職하고 있는 동안에 느꼈던 생각, 또 筆者 나름대로 생각 하여 본 앞으로 協會가 나아 갈 方向에 대해 간략히 그려보고 이글을 끝맺을까 한다.

1962年부터 1964年까지 圖協의 살림을 經驗하여 본 바 年末이면 언제나 協會살림이 바닥이 나고 職員들 俸給마저 支拂할 수가 없어서 個人 私債을 求해 온다던가 臨時변통하여 年度末 總會에 臨하게 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圖協本來의 業務와 또 그 보다 더 많은 量의 豫算획득을 위한 業務 등 열심히 일하여 왔는데 年末이 되면 또 私債까지 求해대야 한다. 이때 事務局 職員은 相對해서 議論할 相對가 아무도 없다.

協會의 會長職도 有給이 아닌 名譽職이고 專務理事나 理事는 더욱 그렇다. 오직 會議가 있을 때 參席해서 發言하고 돌아가면 된다. 事務局의 살림살이 걱정까지 할 아무 義務도 없다. 어디까지나 事務局 職員이 責任지고 個人私債라도 求해다가 어려운 難關도 넘겨야 한다. 그래서 事務局 職員은 바로 自己들이 圖協의 主人이라는 錯覺을 하게 된다. 그런데 總會場이 열려지면 會員들이 主人이 되어 한해 동안에 일을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힐책을 할 때 事務局 職員들의 감정은 결코 명랑하지는 못하다.

또 前述한 協會本來 業務以外의 많은 量의 다른 努力을 傾注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說明하였다. 이 業務만은 여러 가지 面에서 없어져야 할 性質의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圖協이란 어디까지나 專門職을 위해서 構成된 團體이니만치 專門職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當然할 줄 안다.

以上 事務局 職員들의 감정이나 業務面에서나 또 專門職 團體로서 圖協은 이제 스스로 自立할 수 있는 基盤을 가지고 運營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時急한 일임은 여기서 길게 說明할 必要도 없을 줄 안다.

그러나 現在 우리 圖協은 그렇지를 못하다. 그동안 만들었던 圖協의 財産인 各種 刊行物들도 이제 在庫가 없어져가며 昨年부터는 政府補助金마저도 없어졌으니 圖協이 어떤 變革을 겪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른 것으로 안다.

圖協이 最少限의 業務를 하는데 所要되는 豫算을 算出하여 이를 根據로 會費를 調整하고 全圖書館界가 合心全力해서 例컨대 市內에 會館이라도 하나 마련하여 그곳에서 多少의 財源을 마련하는 方法을 講求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안다. 그리하여 圖協이란 財産이 主가 아니고 사람이 主가되는 社團法人體인 만큼 人和團結에 힘쓰고 自力에 의한 健全한 發展을 하는 名實相符한 專門職團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하는 생활속에
밝아 오는 우리 사회

독서 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協力과 理解로서 目的指向的인 發展을 圖謀하자

孫 正 彪
慶北大 圖書館學科

創造에는 苦惱가 따르고 孕胎에는 陣痛이 隨伴한다는 말이 있다.

1957年 延世大學校에 圖書館學科가 設立된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20餘 星霜을 헤아리는 동안 4個 大學의 正規過程과 延世大學校 圖書館學堂, 成均館大學校 司書敎育院 및 各種 短期講習을 통해 排出된 專門司書들은 1955年에 創立된 協會와 더불어 이 땅위에 現代的 意味의 圖書館을 建設하고 이의 社會的인 使命을 完遂해 나가기 위해 不斷한 努力을 傾注해 왔다. 그 結果 비록 짧은 歷史이긴 하지만 어느 館種이나 論理的이고 體系的인 情報流通體制 確立을 위한 組織形成過程에 있어 현격한 發展을 이룩해 놓았으며 더불어 社會的인 認識과 地位의 確立에 있어서도 많은 進展을 꾀해 놓았다 함은 自他가 公認하는 事實일 것이다. 특히 이의 中樞的인 役割을 해온 協會의 獻身的인 努力에 대하여는 우리 다같이 感謝의 뜻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今年들어 이제 겨우 20歲라는 靑年期에 접어드는 짧은 歷史이면서도 그나마 몇푼 안되는 豫算을 가지고 外的으로는 讀書週間과 圖書館週間의 新聞·放送座談會 등을 비롯한 各種 行事를 통해 圖書館이 지니고 있는 社會的 責任과 重要性 및 司書職의 專門性에 대한 社會的 認識을 고취시키고, 또한 圖書館大會를 통해 司書職의 權益擁護와 社會的 地位向上을 위해 盡力해 왔는가 하면 아시아 太平洋地域 圖書館國際會議, 來年에 開催될 IFLA大會의 國內 誘致 및 이들 國際會議에의 積極的인 參與 등을 통해 韓國圖書館界 活動의 國際的인 認識을 促求시키는 한편 內的으로는 專門委員會의 活動과 機關誌 등을 통해 圖書館奉仕 構造改善을 위한 諸硏究와 새로운 技術開發, 專門書籍의 出版 등 現實改造를 위해 실로 많은 努力을 기우려 왔다.

그러나 協會가 成人의 날을 맞이하는 오늘 過去 20年 동안의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筆者의 지나친 欲心일런지 모르지만 하나의 專門職을 代辯할 수 있는 集團組織體라는 見地에서 펼쳐 온 諸般 行動半徑을 살펴 보면 積極的으로 全一體的인 方向定立을 이룩했으면 하는 아쉬운 面도 없지 않다. 이는 비단 筆者만의 느낌에서 넉두리를 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처럼 協會가 獻身的으로 努力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圖書

館人들의 協會에 대한 態度가 아직도 否定的인 態度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한술에 배부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時間의 흐름과 더불어 漸進的으로 改善돼 나가리라 보지만 大部分의 現職 司書들의 意識構造나 생각은 未來指向的이면서 行動은 消極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全人的인 奉仕展開過程으로 突入해야 될 現時點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狀況을 가볍게 넘겨 버릴 수도 없는 일이며 協會도 역시 有能한 者가 司書職에 오래 머므르도록 誘引하기 위하여는 이를 결코 無關心 狀態에 놓아둔다거나 時間의 흐름만을 기달릴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筆者는 이러한 觀點에서 過去 20年 동안 協會가 남겨놓은 業積에 대한 小見보다는 '反省에는 항상 새 歷史의 創造를 위한 批判意識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見地에서 하찮은 愚見이나마 앞으로의 協會의 姿勢와 나아갈 方向에 관하여 過去부터 느껴온 것 중에서 지면 관계상 두가지만을 들어 몇 字 記述해 보고자 한 것이다.

첫째, 協會는 全圖書館人들의 權益擁護를 위해 보다 積極的인 全人的 政策을 確立하기를 바란다.

1971年 第10回 全國圖書館大會에서도 指摘했던 바 처럼 大部分의 司書들이 協會에 대해 無關心的이거나 批判的으로 극히 否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단지 調査結果만도 아니오 平常時에도 자주 듣는다. 심지어 協會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協會인가, 도움도 되지 않는 協會에 加入해서 무엇하는가 등 極端的인 批判의 소리도 들리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회의적이고 直說的인 表現이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고 協會가 現實的으로 直面하고 있는 現象이라면 설령 一部人의 不平에 지나지 않더라도 이는 協會가 누구를 위한 協會인가를 意識하고 새로운 方向定立을 바라는 圖書館人의 呼訴요 繼續的인 舊泰依然한 目的 具現化가 아니라 이미 設定된 目的 自體를 새로운 方向에서 達成할 수 있도록 再定立化를 바라는 마음의 表象이라는 것을 明白히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協會의 意義란 오직 經營의 合理化만을 企圖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集團에 所屬된 人間의 權益을 擁護하고 相互協力的 構造體制를 공고히 하여 自身을 肯定的으로 볼 수 있도록 主觀的 知覺에 의한 個人的 意味의 發見의 機會를 주고 客觀的 尺度를 수반한 批判意識까지 갖게 하는 이른 바 相互性과 相互依存性, 혹은 自律性이 調和를 이루도록 努力하는데 그 主된 意義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協會는 첫째, 오늘의 圖書館이란 過去와는 달리 組織形成 過程에서 全人的 奉仕展開過程으로 나아가 現代社會構造의 急激한 變化에 適應해 나아가고 圖書館을 통한 地域社會 開發의 促進이라는 重大한 時代的인 轉換期에 처해 있다는 것을 早速히 認識하고, 둘째, 大部分의 司書들이 時代的 轉換點에 서서 全人的 奉仕를 위한 奉仕構造 再體制化가 이룩되도록 努力하는 肯定的 態度보다는 圖書館에 대한 社會的인 認識不足과 專門職으로서의 司書職의 誘引體制에 대한 不滿으로 司書들의 意識構造가 점점 더 消極的, 彼動的인 方向으로 나아감에 따라 이러한 問題의 解決과 改善에 中樞的 役割을 맡고 있는 協會에 대한 意識도 극히 否定的인 態度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過去와 같은 對政府 一邊倒 政策만은 樹立할 것이 아니라 內部로부터의 충고보다 外部로부터의 충고가 오히려 더 큰 効果를 가져 올 수 있다는 見地에서 國內外 圖書館界 動向에 대한 迅速한 情報蒐集과 分析 및 國內外의 政治, 經濟, 文化構造의 變動에 따른 迅速하고 精密한 政策을 樹立하여 항상 變化構造에 對處하고 適應해 나아갈 수 있도록 指導的인 役割을 함으로써 社會的인 再認識과 圖書館人들의 信賴感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그와 같은 보다 組織的이고 一元化된 政策樹立에 따라 積極的인 活動을 展開함으로써 圖書館의 發展이 곧 國家發展, 地域社會發展, 나아가 敎育發展을 가져 온다는 認識을 가질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最近에 일어난 일중 한가지 例를 든다면 몇달 前 法律의 改正을 보았던 國立大學校 圖書館 職制의 改正時 館長 아래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고 整理業務까지 包含된 收書課長은 一般行政職이, 閱覽課長은 專門職이 맡도록 改正化 作業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때 協會當局이 이에 대한 迅速한 情報를 入手하여 國立大學 圖書館 專門職 司書들과 共同路線을 폄과 동시에 機關誌나 建議文등을 통해 이의 非合理性을 主張했더라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 격은 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圖書館人들로 하여금 協會가 無能하다는 認識을 갖게 하는 要因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더구나 當圖書館 司書들이 먼저 情報를 入手하여 協會의 迅速한 協調를 要望했음에도 法이 改正된 然後에야 建議가 되는 등 消極的이고 形式的인 行動을 보였다면 專門職者들의 否定的인 態度란 극에 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는 수차에 걸쳐 圖書館關係法의 問題點과 改善點을 論議해 왔고 批判해 왔으며 이에 대한 個人的인 論文도 많이 發表되었다. 또한 司書職에 대한 待遇問題라든지 國立中央圖書館과 國會圖書館의 併合問題라든지 우리의 주변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大小問題들이 論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大部分 私見으로 그쳤을 뿐 그때 그때마다 언제든지 代案을 提示할 수 있도록 協會 當局을 통한

具體的인 共同硏究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드물다 하겠다. 이러한 것들도 어떠한 要求에라도 提示할 수 있도록 具體的이고 標準이 될 수 있는 方案이 摸索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昨年 가을의 일로 기억된다. 文敎當局으로 부터 不穩圖書에 대한 檢索과 報告에 관한 갑작스런 公文이 示達되었을 當時 最高管理者 뿐 만이 아니라 他大學의 專門職者들로 부터 圖書館의 立場에서 생각하는 不穩圖書의 範圍와 限界에 대해 協會當局에서 規定化 될 있는 것이 없는가하는 質疑를 받았던 일이 생각난다. 이러한 것도 韓國的 立場에서 標準化될 수 있는 具體的인 代案이 모색될 있었다면 그렇게 들 당황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協會는 公式的 集團만이 아니라 圖書館界 周邊에 散在해 있는 非公式集團(이는 대체로 親睦會, 同門會, 同窓會 등)에 이르기 까지 폭 넓게 積極的으로 相互 有機的인 關係를 맺어 全人的 내지 全一體的인 方向으로 부터 司書職의 權益擁護를 위한 能動的인 活動을 展開해 줄 것이 要望된다. 그렇다고 이러한 問題를 協會에만 責任지을 수는 없다. 모든 圖書館人은 圖書館人들대로 각자가 協會의 課業에 積極的으로 參與함과 同時에 協會가 目的指向的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協力함으로써 相互 有機的인 關係속에서 우리들의 當面問題들을 解決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든 協會 構成員들은 協會의 結成目的이 무엇인가를 再認識하고 世代的인 差나 地域的인 差에 따른 意見對立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無條件 否定的인 態度를 취할 것이 아니라 相互間의 充分한 意思疏通과 人間關係形成에 의해 內在하고 있는 見解差의 原因이 어디 있는가를 究明할려는 理解깊은 態度를 가지고 協會가 해야 될 일에 대해 共同意識을 갖도록 다같이 努力해 줄 것이 要望된다. 이는 個人의 人性과도 關係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擧論하기가 어려운 問題이긴 하나 人間이란 어떠한 歷史的 狀況下에서도 自己 나름대로의 理性과 判斷力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環境에 支配되는 것이 아니라 改造者라 볼 수 있기 때문에 構成員들의 底邊에 흐르고 있는 不滿的 要素들을 充分히 除去할 수 있으리라 여겨져 몇字 提言하고자 한다.

筆者가 圖書館界에 발을 들여 놓은지도 今年들어 滿 12年이 되고 해놓은 일없이 協會의 專門委員이라는 감투(?)만을 쓴지도 滿 10年이 된다. 비록 긴세월은 아니지만 그동안 筆者가 보고 느낀 것을 한마디로 表現하란다면 적어도 協會의 任員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된 사람이라면 自己에게 주어진 個人的, 社會的 責任이 무엇이며 그러한 責任完遂를 위해서는 어떠한 指導者的 精神을 가져야 되겠는가. 協會의 周邊에 흐르고 있는 不滿的 要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려는 精神的 基調가 確立되어야 되겠다는 點이다. 協會의 總會가 開催될 때마다 우리는 치열한 甲論乙駁이 展開되는 것을 본다. 이는 비단 우리 協會만이 아니오 어떤 組織團體의 總會건 非一非再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이 發展을 위하고 現實改造를 위한 論爭이라면 그 以上 바랄 것이 없겠지만 단순히 政權의 爭取를 위한 舌戰으로 그친다면 再考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協會總會의 會議雰圍氣를 보면 任員改選時에는 서로가 깊은 關心을 갖고 論駁을 펴면서도 진정 協會에 대한 建議가 있어야 될 그 翌日의 會議에는 參席者 數도 數려니와 대부분 無關心 狀態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나마 요 近來는 더욱 치열해져 서울對 地方의 다툼이니, 老壯對 少壯의 싸움이니, 世代交替니, 하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는 말들이 자주 오고 가는가 하면 平時까지도 對立된 狀態가 持續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協會의 總會場은 會員들의 舌戰場으로 提供된 것도 아니오 스트레스 解消를 위해 실컨 論爭을 벌리도록 提供된 場所도 아닐진데 무엇인가 誤解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소위 韓國人의 고질화된 性格인 體面과 權威意識때문에 非妥協的, 不信的 意識風土가 形成되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派黨을 짓게 하고 입씨름大會를 열기 위하여 協會가 結成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하고 그 原因이 어디 있는가를 찾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組織體건 그 組織의 發展을 期待하려면 나 아니면 運營되지 않는다는 소위 閉鎖的이고 權威的이고 保守的인 觀念을 止揚하고 開放的이고 妥協的이고 進步的인 觀念狀態가 維持되어야 하는 것이며 經歷과 年齡보다는 能力을 위주로 하여 全一體的인 總合體制를 이룰 때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더 理解를 하고 讓步를 하여 힘의 對決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努力하고 自我意識을 갖지 않는 狀態에서 共同意識을 가져 우리에게 주어진 社會的 使命과 協會에 주어놓은 社會的 責任이 圓滿히 이행될 수 있도록 努力해 주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內容이긴 하나 이글을 마칠까 한다.

많은 有能人士가 參與된 組織의 힘을 發揮할 때

梁 東 均
全南地區協議會長

1. 前 文

圖協도 創立20周年이면, 이제 成人이 된셈이다.

더구나 光復30周年에 圖協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榮光과 함께 祖國을 생각해보는 어른으로서의 姿勢를 생각해 볼직하다. 提題는「提言」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의 圖協을 생각해 보고 나서 앞을 위한 생각을 다듬어 보는 것이 順序일 것 같다.

우리 第一線에서 그동안의 圖協을 돌이켜 볼 때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苦痛스러웠던 過去를 回想된다기보다는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 나라의 沈滯했던 圖書館活動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위한 어려움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安逸無事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그 어려움들은 전체 圖書館人들의 고귀한 使命感과 執念으로써 克服해져 왔다고 생각한다. 그 知性의 總合이 圖協일 것이다. 그 어려움의 첫째는 政府의 圖書館政策이 稀微해 왔음을 첫째로 들 수 있을 것이다. 總豫算의 千 5百分의 1線, 그것이 도서관예산이 었음을 들 수 있다. 직원들의 俸給이나 주면 맞는 額數이다. 그것을 가지고 圖書館政策의 存在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음으로는 黃金萬能의 風潮속에서 造成된 單純直線 速戰速決의 風土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번거롭게 책을 읽느니 라디오나 테레비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으로 滿足해 버리는 나날의 生活, 그 幅은 날로 增大되고 있다. 어떤 大學生들에 대한 調査結果는 就職을 위한 看板獲得이 학교다니는 목적이었고 大學生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두가 圖書館에나 다니는 것도 제집공부방에 불어 앉아 공부하는 것도 試驗때문이다. 學點을 따고 시험공부를 위한 책이나 팔리고 있으니 出版業이나 書店이나 瀕死之境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전국 公共도서관利用者의 80%가 學生인 것이다. 어쩌면 政府의 도서관정책과 그 傾向과는 因緣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狀況은 圖協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썩 좋은 環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 圖協이 아닐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亂世에 聖賢이 나오는 것이라면 썩 안좋은 事情에서 圖協은 더욱 보람찬 일을 展開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圖協에 참여해온 平素에 느껴진것 몇 가지를 提言으로 대신하려하는데 參與日淺의 菲才가 무슨 寄與가 되려는지 모르나 外向的인 것, 內向的인 것으로 나누어 본다.

2. 提　言

가. 政府政策에의 接近

지난 光復30年동안에 民意를 代表하는 國會議員이 國會에서 한국의 圖書館政策을 擧論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기 出身地區에 도서관이 없는데도 그런 것이 問題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最近에도 적어도 國立中央圖書館이 日帝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南山어린이회관으로 移徙를 했어야 했다. 그 會館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진 建物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國會圖書館을 利用하는 國會議員數는 손가락으로 헤일 수 있을 만치 적은 數여서 그 귀중한 藏書들이 아깝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쯤되면 圖協이 무엇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全南地區協議會에서는 지난 總會때 規約上의「顧問」을「指導委員」으로 바꾸었다. 對內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의 顧問을 外向的기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指導委員은 會를 지도하는 기능과 함께 地方自治團體인 道나 市 그리고 敎育委員會가 도서관 예산을 편성할 때 影響力을 끼칠 수 있는 人士를 推戴하고 학교도서관 육성을 論하는데에 영향력을 발휘할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추대한 것이다. 圖協을 그렇게해서 政策樹立의 周邊에 近接시킨 것이다. 서울本會도 정책수립 주변의 인사나 豫算편성의 周邊에 圖協의 組織力을 뻗히어 놓아야 할 것 같다. 모든 일은 組織的으로 展開가 되어야 하고 會議에서 建議나 決議文 그런 것을 가지고 解決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時代는 아니다. 圖協도 時勢에 잘 便乘해 나감으로써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圖協은 本是 어떤 專門的 기능을 本質로 하는 것이나 그 本質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行動의 힘이 摸索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견해이다. 豫算이 있어야 必要한 册도 編刊하여 會員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 豫算을 本圖協의 本質的기능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빼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圖協도 生存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行動하는 것이라야 한다.

나. 학교도서관의 育成

讀書人口중에서도 가장 貴重한 독서인구가 靑少年이다. 즉 배우며 있는 學童들이다. 圖協도 학교도서관 會員이 絕對多數로서 그 多數에 의해서 維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學校圖書館들의 實情은 말이 아니다. 문교부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이나 운영지침을 보면 學校運營費와 育成會費와 自律的 經費에서 도서비를 뽑아 쓰도록 되어있다. 하란대로 뽑아본 돈은 도서실 職員의 俸給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무슨 돈으로 施設하고 册을 사들일 수 없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敎師中心의 注入式 교육에서 學生스스로가 工夫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文敎部 생각과 현실은 距離가 멀다. 文敎部말고 우리가 어른된 입장에서 애들더러 공부는 하라면서 책을 대주지 않으면 애들은 어찌할 것인가. 학교도서관이나 모든 도서관은 그 設立者가 備品을 사고 책을 사들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학교 設立者인 文敎部는 그점에는 인색하고 있

는 셈이다. 그 事情은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다해서 學童들이 날이 갈수록 많이 찾아들고 있는 도서실에 책을 사넣는 일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放置해 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문교부는 학교도서관 운영指針을 통해서 「도서관의 設置 및 육성은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자가 責任질 일이지만 학교직원이 이 일을 위하여 最善을 다하는 동시에 學生 및 學父兄으로부터 最大의 協力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했다. 곽짜여진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最善」이며 어떻게 「最大의 協力」을 얻으란 것인지 차라리 옛부터 학교도서관 책을 사들이는 財源을 이루었던 圖書費를 부활시켜 주는 것이 실질적 학교도서관 育成의 最善策일 것이다. 학생 한 사람이 1年에 책한권값을 학교도서실에 넣적에 그 學校학생수가 2千名이라치면 책한권값을 내놓고 2千卷의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偉大한 投資가 또 어디 있을 것 같지 않다. 돈을 낸 學父母들로서도 經濟的이고, 그 確認은 도서실에 가면 알일이다. 사들인 册이 바로 領收證구실을 할 것이니 監査도 해볼 것 없는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도서관에 册이 사들여져야만 한다. 계속 册이 사들여지지 못하는 도서관이 圖書館일 수 없다. 현대도서관은 쉴새없이 生産되는 知識이 계속해서 受入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서 만이 산敎育의 학교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은 評價해 두는 바이다. 文敎部나 敎育委員會의 어떤 職員을 떠나 子女를 가진 어른의 입에서 애들한테 一夕에 册한 권 값을 학교도서실에 내게해서 학교도서관이 그 本然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애들이 必要로 하고 읽고 싶어하는 책을 다 사줄 수 있는 그 父母數가 그렇게 많은 수가 안되는 것이므로 協同의 効를 보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法人設立 公共圖書館의 문제

어느해의 全國圖書館大會에서 우리나라에는 公共圖書館의 數가 나무나 적고 또한 그 運營을 위한 財政難이 擧論된 나머지 法人에 의한 公共圖書館의 設立이 勸奬促進되어야 한다는 決議가 된 바 있다. 市立圖書館이 아직도 없는 市가 있으며 1郡 1圖書館의 설립도 아직 遼遠하다. 상당수로 늘어 났다지만 그나마 閉門本業의 도서관도 많다. 그런데 知識이나 갖가지 그 새로운 情報의 需要는 急激히 늘어나고 있다. 새마을 운동이 內實을 目標로 삼고, 所得增大의 정부사업들이 活潑해지면서 册을 찾는 사람은 많아졌다. 農村에 指導所가 있지만 도서관이 있는 學校數만큼 많은 것이 아니어서 학교도서관에라도 내가 必要로 하는 책이 없는가 해서 子女들을 시켜 必要資料의 有無를 물어온 市民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都市의 硏究와 학생의 學習에 지장이 없는한 公共으로 쓰일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本是의 目的을 위한 藏書도 되어있지 못하는 사정에서 學父兄들이 찾는 册이 있을 수 없다. 하나씩 있는 郡立도서관도 開館을 위해 受入해놓은 藏書위에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의 册이 마련되어 있을뿐 새로운 技術情報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適應性있는 財力을 가진 法人設立 公共圖書館은 많이 늘어남직한 것이다. 國內唯一의 전남광주의 法人設立 公共 全日圖書館은 모든 施設이 좋아 優秀公共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 擴張을 해서 座席이 4百餘席에서 6百餘席으로 늘어났으며 그 利用者數는 年 60萬을 헤아렸다. 光州의 자체 人口數가 60萬이다. 資料의 꾸준한 購入과 良書의 選定 및 規格化된 施設은 市民의 圖書館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듯 훌륭히 奉仕되고 있는 전국 唯一의 法人設立공공도서관이 營業稅를 내왔고 이제는 防衛稅까지 添加되었다. 館秩序를 잡기 위한 整理費로서의 入館料는 經濟企劃院에 의해서 公共料金으로 規制되어 그 調整은 長官의 許可에 依하여 될 수 있는데도 稅金이 징수되고 있는 것이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法에 의하여 登錄되어 있는 公共도서관이 거리의 食堂과 같은 營業稅를 물고 있는 것은 안될 얘기다. 이는 成年이된 圖協에 의하여 解決이 되어야 할 것이다. 圖協은 法人設立도서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圖協은 이때 모든 會員의 利害와 보다 直結된 位置를 더욱 굳혀나가야 한다.

라. 司書敎師의 地位向上

文敎部나 각 道敎委의 학교도서란 育成計劃이나 運營指針은 司書敎師를 重視하여 重任을 맡기어 놓았는데 待遇는 그렇지 못하다. 敎導敎師와 같은 대우를 받아 왔는가 했는데 최근에 格下가되어 失望이 크다 한다. 학교에서 司書敎師처럼 일이 많고 고된 교사도 없다. 학생들의 修業을 맡아야 하고 끝나면 圖書館을 돌보아야하니 加重의 일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도서관은 生物體와 같아서 항상 良書라는 營養을 골라서 供給해야하고 그 健全한 消化를 도와야하는 機能을 꾸준히 發揮하고 있어야 하는 때문이다. 그런데 각 敎育委員會에 도서관담당 專任奬學士를 두라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司書敎師도 兼任의 경우 修業時間數가 制限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다 그것은 正式司書敎師의 경우는 있지만 도서관 담당교사가 校長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學校法人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不安상태를 들 수 있다. 司書職은 專門的지식을 要하고 따라서 누구나 맡기 어려운 것인데 현실은 安定感이 없다는 것이다. 安定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學習이라도 자주 받

으려해도 그 機會도 잘 주어지지 않으니 여러모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학교 司書職만이 아니라 전남道內의 신설市立의 司書職들이 흔히 講習의 機會를 圖協에 문의해 오고 있지마는 今度은 年例의 放學동안의 사서교사 講習도 없었다. 우리네 圖書館들이 育成되고 發展되려고 하는데 制度的 뒷받침이 되지못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貴重한 讀書人口를 對하고 있는 司書敎師들의 地位는 向上이 되어야 하고 安定되어 나가야만 이 될 일이다. 그 課題는 圖書館政策에 稀薄한 政府의 覺醒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促進은 國會에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우리 圖協이 앞장서야 할 것으로 안다.

3. 結　言

以上 原稿 마감일에 쫓겨 몇가지 提言을 나열해 보았는데 나로서는 모두 切實한 圖協의 課題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 政府는 自助者를 돕고 있다. 우리 圖協의 自助活動은 定款에 定해진 바와 같이 도서관의 착실한 育成을 위해 貢獻하는 것이다. 貢獻은 問題의 的確한 捕捉과 解決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捕捉보다는 解決이다. 그「解決」에 있어 우리 圖協은 솔직히 無力했던 것 같다. 成年으로 자라난 우리 圖協은 이제 成年으로서의 口實을 해나감직하다. 정부가 싫어하는「依存」그것 아닌「自助」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有能人士가 참여되어있는 組織의 힘을 發揮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序頭의 提言이 곧 그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最善을 다 하고 있을적에 보다 關心을 가져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손을 뻗혀주리라고 믿는다. 物量擴大를 위한 政府의 熱誠에 그 壽命을 永久히 하는 主者로서의 人間들에 훌륭한 價値·倫理觀을 定立케 하는데 있어서「어덕」으로서의 圖書館育成을 우리 圖協의 使命으로 삼아서 보람있는 일이다.

힘을 합쳐 밝은 앞날로 精進을

李　承　周
國立中央圖書館司書官

1955年 韓國圖書館協會가 創立된 뒤 於焉 20年. 果然 이 20年의 韓國圖書館協會史가 우리 圖書館界와 우리 圖書館人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의 文化史的 側面과 國家 및 社會發展的 側面에서 어떤 意味와 意義를 갖는 것일까. 마침 今年이 光復後 30年에 該當하고 各界에서도 이 30年間을 歷史的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있다. 筆者는 우리 圖書館界도 그동안 國家文化와 社會發展 및 變動過程에서 어떤 基調위에서 그리고 어떤 關聯속에서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피고 評價한다는 것은 至極히 意味있는 일이라는 點과 圖協自體의 回顧反省에 의한 自體確認과 軌道 및 體質改善의 機會로서, 그리고 相互對話에 依한 올바른 公論을 形成시킨다는 點에서 뜻있는 일이라 믿으면서도 本人이 筆者로서의 適格 與否에는 스스로 自愧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의 圖協을 中心으로 한 우리 圖書館界와 圖書館人의 狀況에 對한 衷情이 이「靡恥」를 不拘하게 한다. 또 한가지 分明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이것은 筆者가 約 17年間 圖書館界에서 몸담으면서 보고 느낀 것을 土臺로 한 筆者 自身의 생각이라는 것으로 客觀性이나 精密性을 우길 생각은 秋毫도 없다. 筆者는 珠板보다도 주먹구구를 믿는 性癖이 있다. 勿論 그것은 全體 무우드와 總體的 흐름과 그 줄기를 追跡함을 重視하고 微細한 것이 巨視的으로 나타난 커다란 現象을 뒤집지 못한다는 常識의 信奉과 正確性의 追求 때문이다.

韓國圖書館協會는 1955年 4月 16日 創立後 20年間에 9代의 會長과 5代의 事務局長을 갖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동안 우리의 느낌에 있어 두둘어진 特徵은 8名의 會長에게서 8個의 色彩를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4名의 事務局長에게서 各各의 特異性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圖書館界에 미친 影響이 會長들 보다는 事務局長의 性格, 力量, 스타일에 보다 依存되었음을 實證的으로 느끼게 한다. 이 現象이 옳으냐 그르냐는 勿論 論外로 하고 事務局長의 在職單位로 評價됨이 그 本質을 把握함에 보다 妥當性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筆者는 各局長時代別 評價의 디테일은 圖書館史家나 專門家에게 미루고 大局的으로 鳥瞰해 봄이 그 本意이다. 解放後 우리 나라 圖書館界의 걸어온 過程의 特徵的인 體質과 무우드를 中心으로 볼 때 크게 3가지 類型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1955年 圖協發足 以前의 狀況이오 둘째는 圖協發足後 1966年 1月까지의(嚴大燮, 李鍾文時代) 10年間이며 셋째는 1966年 2月에서 1973年 12月까지 張仁植·崔根湳時代로 約 7年間이다. 우리는 解放後 圖協의 結成되기 까지의 圖書館 指導者들에게서 마치 獨立運動을 하는 志士的인 面貌를 볼 수 있었고 그 面面들은 李在郁, 朴奉石, 崔震武氏 등을 記憶할 수 있다. 오늘의 時點에서 돌아볼 때 嚴大燮·李鍾文時代를 發展的으로 評價할 수 있으며 다만 嚴大燮時代가 熱意와 誠實을 特徵으로 하고 李鍾文時代는 발랄한 活力과 機敏性을 特徵으로 한다고나 할까? 여기에 對하여 1966年부터의 第3期에 들어서서 安逸의 期間이었다고 본

다. 現在의 朴大權局長時代가 第2期的 類型으로 評價될 것이나 第3期的 類型의 繼承이냐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같은 解放後 오늘 날까지의 우리 圖書館界의 歷史的 處地를 現實的 感覺으로 하면서 筆者는 館界의 몇가지 問題에 대하여 自己反省의 機會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다시금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5·16革命後 오늘 날까지는 우리 나라는 祖國近代化에 있어 發展的인 激動期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圖書館界는 이렇다할 발전이 없었다는데 重要한 時期를 헛되이 보낸 것을 或者는 오늘 날의 우리 圖書館界의 狀況이 安易하고 沈滯期 또는 更年期的이라고 診斷함에 否定的으로 强辯할지도 모른다. 相互對話는 相互協力과 大同團結의 捷經이다. 그러나 一年내내 集會와 對話의 廣場이 거의 없다. 圖書館大會가 2日이면 2日, 3日이면 3日이 繼續되도록 計劃되었으면 그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外國에서는 저녁까지도 끼어서 5日 乃至 1週日 동안 定해진 期日동안 充分한 討議와 意見이 交換되어 共同의 目標 達成을 위한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全體도서관인들이 모이게 되는 總會나 大會에서는 私心이 개입되어서 파벌 따위가 조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체의 意見이 골고루 반영되는 결과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또한 전체 의사가 결정되면 그 事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例로 專門委員會의 各分科委員會를 보자. 總會가 2月末이나 3月中에 끝나면 分科委員들의 任命과 委囑이 6月, 7月頃에 이루어진다. 各分科委員會는 1年에 2回 乃至 4回로 끝난다. 서로 인사하고 마니 언제 일을 한다는 것인가, 거기 早老現象이 들어 젊은 사람들이 理事나 委員長이나 하려들고 또 總會에서 意見이 반영되지 않으면 不參 또는 任命을 꺼리고 있으니 圖協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緣木求魚이다. 今年度의 總會의 結果로 이룩된 圖協의 構成을 보면 大學敎授를 中心한 學界의 參與가 全혀 없으니 이것 또한 問題이다.

圖書館界의 가장 큰 課題는 專門委員會의 基本的이며 核心的인 課題가 되어야 할 先進 諸圖書館 理論과 技術을 導入, 國內에 導入 消化 普通化하여 內容刷新을 해야 하는 것이고 더우기 日進月步하는 西歐의 圖書館學과 圖書館狀況을 알아야 하겠는데 圖書館學界의 人士들이 많이 빠져있음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다. 協會 會員이 이제 1千餘나 되기 때문에 異言이 있음이 正常이다. 圖書館協會는 名實共히 圖書館人의 「協會」가 되어야 한다. 雅量과 協力을 懇求하는 風土가 이루어져야 한다. 現時點에서 圖書館界에 生氣와 活路를 찾는 길은 모두 힘을 합쳐 밝은 앞날로 精進하는 길일 것이다. 오직 하나 圖書館協會가 非公式 懇談會를 하루 速히 마련하는 일이다. 參加者는 圖書館界의 中堅以上으로 하여 거기서 圖書館界의 모든 實質的인 問題를 협의한다. 그것은 野遊會의 形式도 좋으며 그렇게 해서 다같이 共存하는 協會를 摸索토록 努力하여야 한다. 그 野遊會에서는 定款의 基調에 對해서도 論議해서 그 精神에 立脚해서 理事會로 하여금 評議員會에서 作成明年 總會에 提出토록 바라는 바이다. 그것이 앞으로의 圖協을 民主化하고 能率化하는 오직 하나의 方法이다. 定款은 그 組織의 總體的인 面과 그 目的의 遂行을 爲하여 必要한 內組織에 對한 規程들이며 그것은 機能的인 組織理論에 立脚하여야 한다. 定款에는 內部組織의 上下, 縱橫關係가 規定되고 그 各機能이 차질없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꼭 「魔術師의 자루」 같아서 組織은 百貨店처럼 많으나 相互關係가 模糊 不分明하다. 그렇기 때문에 內部組織이 機能을 다하지 못한다.

地區協議會와 部會에 對하여도 組織間의 關係를 明確히 그리고 合理的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며 各組織이 機能的으로 獨自性을 갖고 稼動토록 해야 할 것이다. 定款上의 다른 重要한 것의 하나는 會員의 權利와 任務에 關한 規定이다. 이것은 적어도 協會運營의 公正과 民主化를 爲해서 緊要하다. 定款上 會員은 三種이 있다. 問題는 團體會員인데 總會時의 投票權에 있어 團體會員은 投票權이 있어서는 안된다. 總會上 團體란 實在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個人이 單位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團體會員은 部署就任權과 圖協에서의 實質的 給付利益을 保障함이 그 正道라고 본다. 따라서 總會定足數와도 關係가 없어야 한다. 더구나 오늘 날까지 總會에서 委任投票를 個人, 團體할 것 없이 認定을 해왔기 때문에 不當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 委任이란 總會의 會議成立만에 効力을 갖어야지 票決權에도 그것을 計算하여 「죽은 崔哥」를 만들어온 것은 아프리카나 500年前에나 通하든 魔術師의 작난인 것이다. 이것은 期必코 다음 總會부터는 是正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圖協創立 20年, 이제 圖協의 機能的이고 合理的이며 民主的인 組織과 基調위에서 밝은 내일을 設計함은 뉘 아니 바라겠는가. 지금 協會는 딱한 處地에 있다. 圖書館人의 總合的 機構로서의 安定性이나 財政面에서 어려움 속에서 來年의 IFLA 大會를 맞이 하게 되어 있다. 來年 大會에서는 期必코 圖書館의 大同團結의 기틀이 잡히어 그들에게 團合되고 活力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